

# 대형교회 예배공간 구성

## Composition of Worship Space in Megachurches

유보영\* / Ryu, Bo-Young

이강훈\*\* / Lee, Kang-Hoon

### Abstrac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f evangelical activities in Korea, the Korean Christianity has been explosively grown since 1884. Now Korea became one of the top countries exporting many missionaries to other countries. We call the 1970s and after as the time of diversity in Korean churches and those buildings. In this period, Korean churches have grown larger and bigger, so called mega-churches. Including Yoido Full Gospel Church, Seoul with 10,000 seats, there are 22 mega-churches in Korea out of the world top 50 mega-churches. Having the necessity of knowing the composition of worship space of mega- or super-mega-churches, we analyzed and classified the information of mega-churches which were built after 1970s. We collected resources through blueprints, visitations of buildings, and interviews by phone. For this study and research, we selected total 66 churches. Based upon the existing theories, we categorized the plane of worship space, its axis, the arrangement of attendant seats, the location of the choir, and the pattern of a cross section of buildings. We also brought the conclusion of specific characteristics given through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the style, and the denomination of megachurches.

키워드 : 시대별, 유형별, 교파별 특성, 예배공간 구성, 대형교회

Keywords : characteristics of period, style, denomination, Composition of Worship Space, Megachurche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884년 개신교가 전파된 이래로 복음이 전파된 기간에 비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선교 수혜국에서 선교 수출국으로 해외선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상식은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 대학원 논문에서 세계 50대 대형교회중 한국교회가 22개라고 미국 기독교 연감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1973년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수용인원 10,000명의 한국 최초의 초대형 교회건축물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교회건축이 활발함은 물론 예배당의 크기도 초대형화되어 3500석이상의 교회들이 건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및 초대형교회 예배공간의 공간구성 방법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예배공간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의 1,000석이상의 대형교회 중 한국교회 건축이 비교적 활발하고 양적인 성장보다는 건축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다양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의 신축된 대형 및 초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역사가 10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교파와 그에 소속된 분파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전파방법이나 교육형태, 예배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다. 따라서 문헌고찰이나 종교적인 접근보다는 순수하게 교회건축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데이터화 하는 귀납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건축 잡지, 작품집을 통한 자료 수집과, 직접 답사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분석·정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 2. 교회의 공간구성

### 2.1. 교회건축의 시대구분

교회건축의 시대구분에 대하여는 선행되어진 연구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인용 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로 홍순명의 분류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건축사

\*\* 정회원,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도입기(1882~1897)

초기의 한국교회는 거의가 한옥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기존 가옥에서 내부 간벽을 모두 헐어 집회공간을 마련하였는데 그 규모는 대개 정면세간 내지는 네간 정도의 가옥이었다.

· 정착기(1897~1919)

1910년 한일조약과 1919년 3.1운동의 여파 등으로 일제의 교회 강점이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한식교회에서 발전된 한·양 절충식교회와 양식교회가 주로 건축되었다.

· 침체기(1919~1953)

1919년 3.1운동이 기독교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후 외형적인 압력으로 인해 교회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교회 건축 활동도 침체되어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 되기까지 교회건축은 침체기의 연장이었다.

· 부흥기(1953~1971)

한국전쟁 이후 해외에서 공부하던 사람들과 서구의 건축양상을 견학한 건축가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건축활동도 다양해진다. 당시 교회건축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이 주종을 이루었다.

· 다양화기(1971~1990)

7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회건축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70년대에는 교회건축의 새로운 시도가 나타난 시기이다. 다양한 기능의 변화로 현대 교회건축은 다양하게 변화 가는 시기 이다.

2.2. 교회의 규모

이전의 교회건축에 관한 많은 논문들에서 교회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실례로 윤희철(92)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소규모 500명 미만, 중규모 500~1,000명, 대규모1,000~3,500명 초대형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구분하였다. 한동욱(94)의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에는 교회의 규모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었으며 여기서 소형을 소형, 초소형으로 대형을 대형, 초대형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각각의 규모들의 인원수는 초소형 100인 미만, 소형 100~600인 미만, 중형 600~1,200인 미만, 대형 1,200~3,500미만, 초대형 3,5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한상식은(99)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대학원 논문에서 매주일 예배참석인원을 기준으로 대형교회를 2,000명 이상으로 보았으며 특히 초대형교회 10,000명 이상으로 교회의 규모를 구분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기능이 복합화 되고 다양화 되는 경향에서 교회 규모를 단지 예배 공간의 크기에 의해 구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구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윤희철의 기준을 따르고 예배공간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1,000~3,500석 미만을 대형교회로, 3,500석 이상의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구분한다.

<표 1> 예배공간의 규모

구 분	예배실 수용인원
소규모	500인 미만
중규모	500~1000인
대규모	1,000~3,500인
초대형	3,500 이상

3. 예배공간의 공간구성

하아비 콕스는 교회론에서 교회의 기능을 케리그마(Kerygma:선포), 디아코니아(Diakonia:화해, 봉사), 코이노니아(Koinonia:친교)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이 참된 교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콕스의 이론은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신교 교회의 예배공간은 크게 강단부와 회중석의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성가대석이 포함된다. 교회공간 중에서 중심이 되는 예배공간의 공간구성에 관하여 사례를 통한 그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하아비 콕스의 교회기능 분류

교회기능	교회내부	교회외부	건축적 기능
선포 (Kerygma)	설교, 교육	전도,선교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방송시설, 출판 시설
봉사 (Diakonia)	교직, 운영	사회봉사	상담실, 탁아소, 복지원
친교 (Koinonia)	공동체 생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된 장소	친교실, 수양관, 각종집회 등을 위한 열려진 공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 휴게 교양시설

3.1. 평면유형

연구대상 교회는 성도석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로 평면등도면의 자료가 있는 66개 교회며 그중에서 성도석 3500석이상 초대형교회가 13개 교회 였다. 평면의 유형에는 장방형, 정방형, 부채꼴형, 타원형, 원형, 십자형의 유형으로 분류 할수 있고 뚜렷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유형은 기타로 분류 하였다..

장방형의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고 부채꼴형, 정방형, 타원형, 원형의 순이었다. 초대형의 경우는 부채꼴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고 장방형과 정방형이 같은 수로 나타났다.

<표 3> 교회별 예배공간 유형분류

유형	교회	개수	비율	비고
장방형	부산포도원의 21개 교회	23(3)	34%	( )안은 3500석 이상 초대형교회
정방형	사랑의교회외 12개 교회	13(3)	20%	
부채꼴형	서울벤엘장로의 14개 교회	14(4)	22%	
타원형	광주성림침례외 5개 교회	7(2)	10%	
원형	(여의도순복음)외 2개교회	3(1)	5%	
십자형	서울영락장로	1	1%	
기타	부산거제장로외5개교회	5	8%	
합계		66(13)	100%	

	1996	1997	1998	1999	2000
장방형					
정방형					
부채꼴					
타원형					
원형					
십자형					
기타					

<그림 4> 시대별 예배공간 유형 분류

	1973	1977	1978	1979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장방형										
정방형										
부채꼴										
타원형										
원형										
십자형										
기타										

	2001	2002	2003	2004	2005
장방형					
정방형					
부채꼴					
타원형					
원형					
십자형					
기타					

### 3.2. 축유형

건축공간으로서의 축은 길이와 방향의 의미를 가지며 시선의 범위와 동선을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축의 특성은 평면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단축의 시선의 범위를 좁힌 부채꼴 평면을 다층화하여 회중을 최대한 단상 가까이 배치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대교회의 공간을 3가지로 구분한 예)가 있다.

#### ① 등축성(longitudinal space)

바실리카 형식의 신랑(nave)의 전통적 특성을 위주로 구성되며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 집중력이 좋으나 평면이 길어질수록 음향조건이 불리하여지며 설교단과 회중석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므로 수용 좌석수가 적어지게 된다.

#### ② 사축성(transversal space)

제단과 회중석의 긴밀도를 위하여 대각선축 또는 단축으로 구성된다. 설교단과 회중석의 거리가 가까워 일체감을 형성하고 음향적인 조건도 장축에 비해 좋으나 시각이 넓은 단점이 있다.

#### ③ 유심축성 공간(centralized space)




제단을 회중석내로 끌어들이 평면의 구심축을 중심으로 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장방형								
정방형								
부채꼴								
타원형								
원형								
십자형								
기타								

1)한동욱, 한국교회 예배공간의 건축적 유형과 공간체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 p.119

성된 가장 개방된 예배공간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의 사례별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형이다.

<표 5> 교회별 예배공간의 축성

교 파	교 회	개 수	비 율	비 고
longitudinal space 	부산포도원장로의 31개 교회	32 (4)	48%	() 안은 3500석 이상 초대형 교회
transversal space 	(여의도순복음)의 32개 교회	33 (9)	50%	
centralized space 	사례교회 없음	0	0%	
the rest	서울영락장로	1	2%	
합계		66 (13)	100%	

### 3.3. 성가대 위치

예배공간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강단부와 회중석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이러한 두 가지 요소뿐 아니라 성가대석도 예배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가대석의 위치를 강단후면, 강단전면, 강단측면, 회중석일부, 회중석측면, 회중석 후면과 성가대 알코브 7가지로 분류 하였다. 성가대석의 배치는 회중석 측면에 배치한 교회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가대 알코브, 강단측면, 강단후면, 회중석 일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단전면과 회중석 후면에 성가대석으로 배치한 교회는 한곳도 없었다. 이는 한국의 대형 및 초대형 교회가 성가대석을 회중과는 구별된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 3.4. 회중석 배열




회중석의 배열은 3가지로 유형을 분류 할 수 있는데 강단과 나란한 배열, 부채꼴 형태의 배열, 그리고 십자형의 배열이다. 회중석의 배열은 예배공간의 유형, 축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장방형 평면에서는 강단과 나란한 회중석의 배치를 보이고 부채꼴형과 정방형 평면에서는 대부분 부채꼴의 회중석 배치를 보인다.

### 3.5. 단면유형

교회내부의 단면형태는 공간의 시각적 음향적인 기능 외에 교회건물로서 공간감을 표현하므로 교회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현대의 교회건축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한정된 공간에 어떻게 최대의 회중을 수용할 수 있는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연구의 사례에서 총 66개 교회 중 단면의 자료나 정보가 있는 43개의 대형교회 및 초대형교회에서 플랫폼의 단면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일형의 유형은 두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3,500석 미만의 교회였다. 발코니형의 단면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 하였고 이 경우 예배공간의 층 수가 2개층과 3개층인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다. 특히 3,500석 이상의 초대형교회에서 예배공간의 단면을 3개층으로 구성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평면의 길이의 한계를 단면에서서 극복하여 수용인원을 최대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교회별 단면유형

단면구성	교 회	개 수	비 율	비 고
플랫폼 	사례교회 없음	0	0%	() 안은 3500석 이상 초대형 교회
발코니형 	2개층	26 (2)	60% (25%)	
	3개층	15 (6)	35% (72%)	
단일형 	서울별열장로 외 1개교회	2	5%	
합계		43 (8)	100% (100%)	

## 4. 대형교회 예배공간 특성

### 4.1. 시대별 특성

서두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1990~2005년까지 폭발적인 교회 건축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한국교회 건축에서 1990년대 이후를 한국교회의 대형화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형교회가 많이 건축 되었다. 조사된 교회의 자료를 가지고 볼때 총 66개의 교회중 1970대부터 1989년대 까지 8개였던 초대형을 포함한 대형교회는 1990년 부터 2005년까지 56개의 교회가 건축된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평면의 유형은 장방형과 부채꼴형이 주를 이루다가 1993년 할렐루야에서 타원형의 형태가 보여지며 2001년 부산 제일교회 이후 그 수가 많아진다. 단면의 유형의 경우 1992년 서울 성락침례교회에서 최초로 3개층의 단면이 나타나고 이후 3,500석 초대형교회에 그 수가 많아진다.

### 4.2. 유형별 특성

앞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대형교회 및 초대형 교회의 특성을 유형별로 보면 평면의 유형에서는 장방형이 가장 많았으나 초대형으로 갈수록 원형과 타원형이 나타나고 주안장로교회나 새

로남교회의 경우 타원형의 단축 평면이 나타난것은 시각적, 청각적,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단면의 유형은 단면 발코니형이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데 1992년 이후 3개층의 단면이 나타남으로 단일 공간에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단일형의 단면의 유형은 2개 교회에서 나타났고 플랫폼은 사례교회에서 발견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각각의 단면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4.3. 교파별 특성

교파별로는 장로교 교단이 대형 및 초대형교회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감리교, 침례 순복음교회 순으로 나타났다. 장로교와 순복음교회는 장방형 평면유형이 감리교는 부채꼴 유형이 가장 많았고 침례교회의 경우는 장방형과 부채꼴의 유형이 같게 나타났다. 성가대석의 배치와 축성 및 단면의 유형에서는 교파별 두드러진 특징은 발견하기 어렵다.

## 5. 결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의 대형 예배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시기 중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대형교회의 건축이 많이 건축된 시기이다.

둘째, 예배공간의 유형은 평면에서는 장방형·부채꼴·정방형의 순으로 분포하며 단면은 발코니형이 가장 많다. 초대형으로 갈수록 평면은 부채꼴·타원형으로, 단면유형은 3개층의 유형이 보여진다. 회중석의 배열은 대부분 평면의 유형을 따르고 성가대석은 회중석 측면을 사용하는 교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교파별로 대형 및 초대형 교회의 수는 장로교회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감리교·침례교 순으로 분포된다.

### 참고문헌

1.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도서출판 발언.
2. 이호진, 한국의 교회건축, 산업도서출판공사.
3. 이은석, 새로운 교회건축 이렇게 하라, 두란노.
4. E.A. SOVIK, ARCHITECTUR FOR WORSHIP.
5. EDWIN HEATHCOTE AND IONA SPENS, CHURCH BUILDERS.